

정확도 99.9% 에이즈 타액검사법 개발·감염여부 조기발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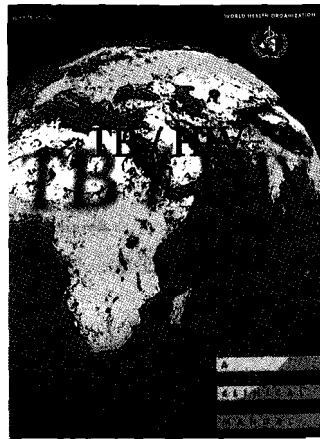
피를 뽑지않고도 침검사검만으로 에이즈 감염여부를 거의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됐다. 미국 의학협회지는 오리건주 에피토프사의 존 피첸 박사가 수지에 면섬유패드를 붙여 입안의 볼속에 넣어 2분간 흡수시킨후 즉각 보존조치를 취한 침을 이용 에이즈검사를 실시한 결과 99.9%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새 검사법은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아 현재 혈액검사법에 대체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간편하게 검사를 받아 에이즈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聯合)

카포시육종서 바이러스 배양성공 에이즈 환자에 가장 흔한 피부암 일증

에이즈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암의 일종인 카포시육종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미국 미시간대학 메디컬센터와 로올라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뉴 앙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카포시육종으로부터 일종의 헤르페스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헤르페스바이러스가 막바로 카포시육종의 원인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이 발견이 보다 효과적인 진단·치료법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 UPI=聯合)

아동용 HIV치료제 '비라셉트' 곧 출시

HIV에 감염된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프로테아제억제제 비라셉트가 곧 시판될 것이라고 미국의 아구론 제약회사가 발표했다. 아



구론사는 미국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올때까지는 비라셉트를 2세에서 13세까지 HIV감염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FDA가 이미 승인한 프로테아제억제제는 3종이 있지만 모두 성인용이다. (워싱턴 AFP=聯合)

유아 에이즈에 특효치료법 개발

에이즈에 감염된 16개월 이하 유아들을 지도부딘, 디다노신, 네비라핀 등 세가지 약품을 혼합한 에이즈 치료제도 치료한지 수주만에 이들에게서 HIV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에이즈 전문가들이 밝혔다. 한편 이번 실험은 강력한 약약품으로 감염초기에

HIV를 제거하는 것으로 성인에 대한 실험과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AFP,UPI=聯合)

에이즈바이러스 공격 신무기 개발 독성 물질 무장한 백혈구가 공격

시험관에서 백혈구에 HIV감염 세포 대부분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물을 생성, 분출케하는 유전자를 투여하고 이 독성물질로 무장한 백혈구로 하여금 HIV감염단백질 입자를 공격하게 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일부 백혈구가 HIV감염세포를 죽일 수는 있으나 그 능력이 제한돼 있어 사람의 HIV감염세포를 모조리 파괴할 수는 없다. 이 새로운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만약 독물 생성이 HIV세포 파괴 이외의 부작용을 빚을 경우 독물 생성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AP=聯合)

에이즈환자 자살드는 의사 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에이즈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가운데 50% 이상이 적어도 1번 이상 에이즈환자들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 90년 당시에는 전체응답자의 28%만이 환자의 자살지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는데 최근 조사와 비교할때 자기 환자들의 자살을 돕는 의사들의 비율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워싱턴 AFP,UPI=聯合)

AIDS NEWS

미국법원 에이즈환자 자살권 인정

에이즈와 폐렴 등으로 하루 40살의 약을 복용하며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환자가 플로리다주 법원으로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담당판사는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문제가 사회적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에만 국한시킨다고 판시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dpa=聯合)

수술 의사들도 에이즈 검사 받아야·감염사실 모른채 수술하다 감영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도른 채 수술하다 한 환자에게 HIV를 전염시킨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외과 의사 파트릭 코앵 박사는 "우리에게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에게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의사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관리들은 코앵박사가 83년 수술도중 한 환자로부터 감염됐으나 94년 증세가 나타나 검진을 받을 때까지 감염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코앵박사로부터 수술받은 1천명의 환자들을 검사한 결과 1명의 양성반응자가 발견됐다. (파리 AP=聯合)

비타민결핍 에이즈위험 2배 높다 HIV감염 동성애자 등 310명 대상 조사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과학자들은 HIV에 감염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3백 10명을 대상으로 체내 비타민

결핍과 에이즈 진행간 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들은 1.2 체내수준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완전한 에이즈로 진행될 위험이 거의 2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과학자는 HIV초기에 환자들의 비타민 결핍증세를 바로잡는 것이 에이즈의 자연적 진행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UPI=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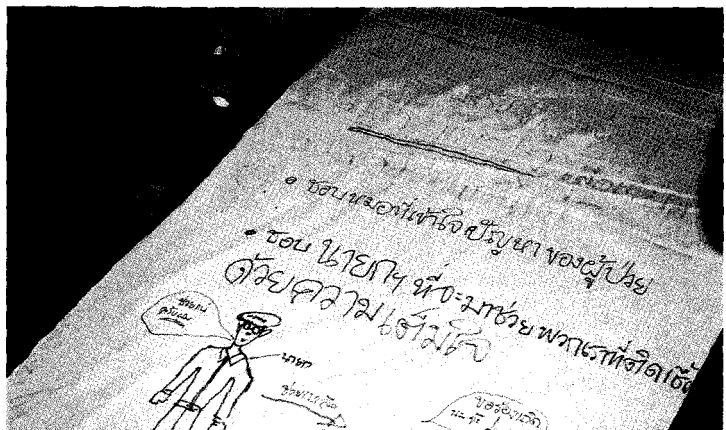
신생아 에이즈 검사결과 강제공개

뉴욕주는 최근 수년동안 신생아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익명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나 10개월 전부터 산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검사결과를 공개해왔으나 지난 여름 제정된 주 법률에 의해 시행된 새로운 계획은 산모의 동의없이도 의무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률은 인권옹호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최근 중단된 HIV검사 익명실시계획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뉴욕주에서 출산한 산모 가운데 HIV양성 판정을 받은 산모는 약 1천 1백명으로 집계됐다. (뉴욕 UPI=聯合)

인도 캘커타 매춘부 40% HIV 양성 반응

인도 보건공중위생 연구소의 S.자나 박사는 캘커타에서 열린 직업여성을 위한 에이즈예방교육에서 캘커타와 그 인근 도시 하우리시 흥등가에 있는 매춘부의 40%가량이 HIV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약 2백명의 매춘부가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 에이즈예방 조치들이 집중논의 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동료들에게 확산시키는 한편 콘돔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뉴델리 dpa=聯合)



• 태국의 에이즈예방캠페인을 '우편엽서'

佛 중고교에 콘돔 자판기 설치키로

프랑스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에이즈와 성병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국립 중고교에 콘돔 자동 판매기를 설치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 및 종교계 고교의 경우 자판기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10~15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중등학교에도 콘돔 자판기를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 프랑스에서는 지난 92년 교육부의 에이즈 퇴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약 60%에 달하는 고교가 콘돔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파리 AFP=聯合)

러시아 HIV 감염자 급격히 증가

러시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중 공식등록된 새로운 감염자들만도 1천3백97명에 달한다고 러시아 보건부 관리들이 밝혔다. 캐나다 오니쉬첸코 복지부 차관은 러시아가 현재 HIV확산 제2기를 맞고있으면서 마약 중독자들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니쉬첸코 차관은 칼라닌그라드, 사라토프, 크라스노다르 등 지역에서 각각 95에서 4백59명에 이르는 HIV 감염 마약중독자 무리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고 인테르팩스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87년 이후 러시아에서 공식 확인된 HIV 감염건수가 2천 4백 39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이달초 현재 이같은 감염자들 중 에이즈로 발전된 것으로 진단된 사람들은 모두 2백48명

이며 이들 가운데 1백2명이 어린이다. (모스크바 AP=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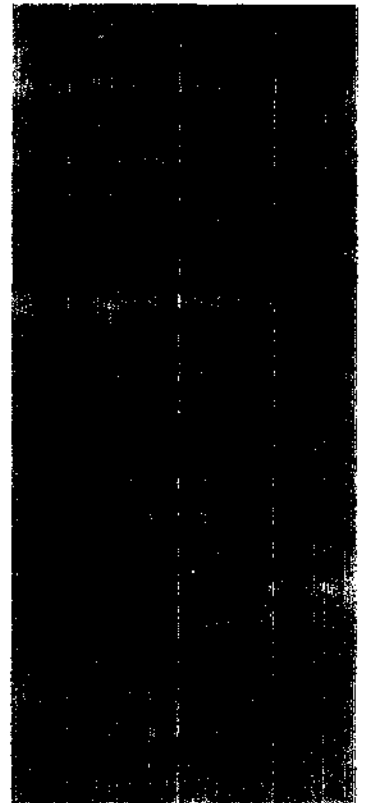
에이즈걸린 외국노동자 37명 추방

쿠웨이트는 지난 96년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 노동자 37명을 추방했다고 쿠웨이트의 한 고위보건관리가 밝혔다. 라시드 압델 아지즈 알 오와이시 보건국장은 지난해 쿠웨이트에 온 외국인 노동자 17만 4천명 중 거주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의료검사에서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의 질환에 걸린 9백16명을 추방했으며 그 중 에이즈 환자는 37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6년 에이즈로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95년보다는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쿠웨이트는 전체 인구 2백만명 중 약 3분의 2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는 이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걸프협력척의회(GCC)회원국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걸프지역에 들어오기 앞서 이들 중 나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려내기위해 걸프지역 외곽에 80개 이상의 진단센터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쿠웨이트시티 AFP=聯合)

中國 혈액제품 관리규정 마련

중국은 국내 생산된 혈액제품이 HIV에 감염됐다는 충격적 소식에 따라 혈액제품 관리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48개 조항의 이 규정은 혈액 수집, 혈액제품 제조·관리 감독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담고 있다. 신화

통신은 이 규정이 혈액을 통한 질병 전파를 방지·통제하고 혈액제품의 질을 안전하게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위생부의 지난 5월 정기안전검사 실시중武漢에 있는 한 軍공장에서 제조된 혈청 알부민에서 HIV가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北京 AFP=聯合)



“에이즈감염”착각 살인강도 행각

태국 청년 수라삭 코테웁(26)은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믿은 나머지 경찰의 총을 맞고 생을 마감하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였다고 영자신문 네이션



이 보도. 코테윙은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하고서 방콕일대를 돌며 살해 등 무자비한 강도행각을 벌였는데 그는 경찰에 체포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경찰의 총격을 받아 에이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고 토로. (DPA)

변심 애인에 에이즈균 주입 혈액

“비타민제”로 속여 주사

불륜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이어지는 「에이즈 복수극」. 테마는 「해복은」것이지만 수법은 매우 「현대적」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적한 마을 라파예트에서는 의사가 자신을 배신한 여자에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주사(注射)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 최근 이에 대한 재판으로 떠들썩하다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루

이지애나 주검찰은 리처드 슈미트라는 의사가 지난 94년 에이즈환자에게서 추출한 혈액을 여자친구인 제니스 트라한에게 주사했다며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유부남인 슈미트는 직장동료인 트라한과 10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트라한의 갑작스러운 변심이 끔찍한 복수극을 불러들였다.

에이즈정복의 돌파구 열렸다

획기적치료제 <비로덴PO58> 개발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대학 연구팀은 자신들을 위해 일한 정부에 특별자선회의에서 새로운 에이즈치료제 <비로덴PO58>의 개발을 발표하고 마투라 연구를 위해 정부가 국가예산에서 2백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팀은 10여명의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임상실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지 불과 2~3주도 안돼 포진, 종기 등 피부병이 깨끗이 없어지고 체중증가의 함께 원기를 회복하는 등 증세가 뚜렷이 호전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극적인 결과는 몇몇 환자가 이 약의 투여로 에이즈가 잠복하기 이전인 AIDS양성의 상태로 되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비로덴PO58>은 피부에 붙여 피부를 통해 혈액에 흡수되도록 한 패치형태의 치료제로서 약효는 한달에 35달리 정도로 아주 짧아 치료기간은 6~8주면 된다. 화학성분이 비알에 부쳐지고 있는 <비로덴PO58>은 프리토리아대학의 올가 비서 교수, 칼리 란다우어 교수, 폴레스 교수 등 3명의 학자에 의해 개발돼 특허를 취득했다. (프리토리아 AFP.dpa=聯合)

<비로덴PO58>효과 과학적 검증 필요하다

남아공의 의학계는 약의 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아공의 관제기관들은 이처럼 중요한 연구결과를 먼저 의학전문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은 변칙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립적인 의학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연구기관들의 폭발은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런 반응들에 대해 프리토리아대학당국은 연구팀이 연구발표의 관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각각 조사해보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해서 연구결과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하네스버그 AFP.dpa=聯合)

<비로덴PO58> 임상실험 잠정중지

남아공의 의약통제위원회(MCC)는 프리토리아대학 연구팀, 프리토리아대학 윤리위원회, MCC가 <비로덴PO58>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할 때까지 이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하네스버그 AFP=연합)